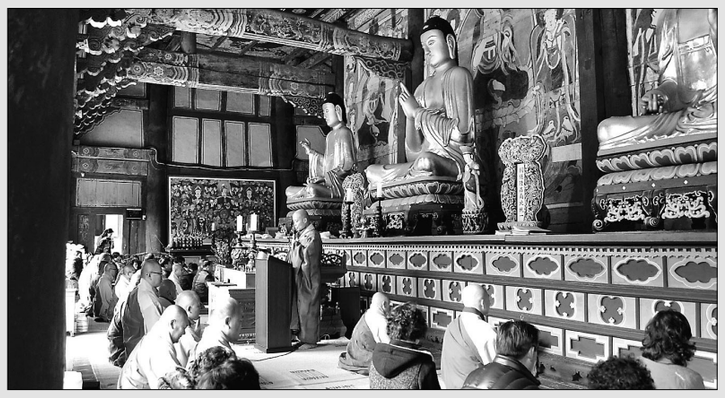

선운사 대웅보전서 봉행된 천일기도 회향법회.

선운사 '약사여래 천일기도' 회향

관음 천일기도 2월 11일 입재

지난 2014년 4월 입재한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의 약사여래 천일기도 회향법회가 1월 8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열렸다.

회향법회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학장 환성 스님, 고창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군산 관음사 주지 도천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선운사 신도회 임원, 군산 관음사 불자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동참했다.

경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천일기도를 회향한 불자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선운사는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 기도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100년 모은 재물보다 하루 마음을 밝히는 선근 공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단히 기도정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성 스님은 축사에서 "기도는 진실해야 하고 어느 곳에 있든 항상 청정해야 한다"며 "천일기도를 회향한 대중은 삼보의 위신력으로 평안과 안녕이 같이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선운사 불학승가대학 스님, 선운사 신도회는 약사여래 천일기도를 회향한 성진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회향을 축하했다.

이번에 약사여래 천일기도를 회향한 성진 스님은 선운사에서만 2번의 천일기도를 성만했으며 내장사를 포함해 총 3번의 천일기도를 성만했다. 한편 선운사는 오는 2월 11일 관음 천일기도를 입재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포근한 이불에 情 담아드려요

광주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 지원사업 펼쳐

최근 광주지역 불교계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이불을 전달해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1월 1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불 100채를 전달했다.

광주지역 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를 비롯해 문빈정사 · 만덕사 · 한마음선원 · 정안사 · 달마사 · 비전사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이불은 1월 2일 1차로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쉼터 5곳에 30채를, 7일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등 7개국 20명을 선정해 20채를 전달했다. 이어 8일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생활하는 사업장 기숙사와 컨테이너 박스로 된 기숙사 9곳 50명을 선정해 이불 50채를 전달했다.

비전사 주지 보혜 스님은 2차 전달식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나라에서 지내다 이곳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사람과 사람이 정을 나누는 것은 어디서나 가장 좋은 문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나눔 의미를 설명했다.



광주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캄보디아 쉼터를 방문해 이불을 전달한 뒤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주성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계의 따뜻한 정이 이불과 함께 전해져 우리나라에서 정착해가는 외국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불교계의 겨울이불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늘 소외된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0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불교계의 따뜻한 마음과 불교국가에서 온 이들에게 불교공동체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올해 처음 진행됐다.

캄보디아 쉼터에서 기거하는 반야(29) 씨는 이불을 전달받은 뒤 "따뜻한 이불만큼이나 한국인들의 정성어린 마음에 감사하다"며 "우리를 늘 신경 써주시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이불을 전달받은 캄보디아 쉼터에는 매일 7~8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지낸다. 외국인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길 때 잠시 쉬었다 가는 숙소로 이용되며, 주말에는 30여 근로자들이 모여 숙식을 해결하기도 한다. 현재 광주외국인복지센터에서 방을 얻어 주고 불교계에서 쌀과 운영비, 일부 부식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주성 센터장은 "캄보디아 쉼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쉼터 역시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한 편"이라며 "불교계의 도움을 받곤 있지만 더욱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서 키우는 청소년리더십

2월 11~13일, 광주 선덕사서

청소년불자들을 위한 겨울 캠프가 열린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는 오는 2월 11~13일 2박3일 일정으로 광주 선덕사에서 청소년리더십캠프를 개최한다.

'무등에 올라 세상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캠프는 △리더십 프로그램 △무등산 에코트레킹(원효사~토끼봉~규봉암~장불재~동화사터~원효사) △영화감상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된다. 캠프에는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과 유장석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참여한다.

올해로 4회째인 청소년리더십캠프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서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자리다.

주최 측은 "불교적 이름인 무등산(無等山)은 산골짜기마다 불교와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많다. 또한 심신을 단련하기에도 좋아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행사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착한벗들, 어린이 겨울캠프

다문화가정 아동과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이 '2017 다꿈티움 어린이 겨울캠프'를 개최했다.〈사진〉

'마음속의 보물을 찾아요'라는 주제로 1월 6~8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전주 참좋은우리절에서 열린 겨울캠프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16명,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8명 등 총 47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겨울캠프는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력으로 인성을 가꾸고, 세계문화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캠프는 입재식에 이어 사찰예절, 발우공양, 구연동화, 미니올림픽, 내 마음속의 부처님 표현, 다문화음식 만들기, 눈썰매 놀이 등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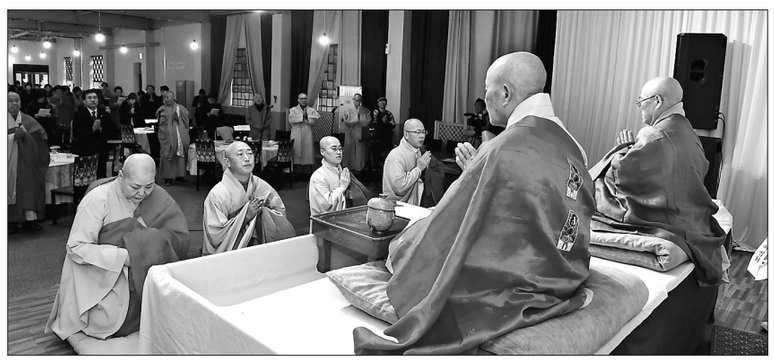
"새해에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광주동구불교협의회, 신년하례법회 봉행

광주 동구의 발전을 기원하는 신년법회가 열렸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무등)는 1월 7일 광주 사찰음식점 수자타에서 '정유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동구 발전과 시민 행복을 기원하며 회원들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새해를 여는 첫 법회에는 세심정사 회주 지암 스님,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 협의회장 무등 스님을 비롯한 동구지역 회원사찰 스님들과 박주선 국회의원, 김성환 동구청장, 동구청불자회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여했다.

법회는 증심사 합창단 무대를 시작으로 헌향, 헌화, 불교의례에 이어 동구지역 원로스님들에 대한 세알배례, 덕담, 축사, 자비나눔 장학금 전달, 발원문 봉독, 사홍서원, 축하공연, 저녁공양 등이 진행됐다.


신년하례법회에 참여한 대중이 지역 원로스님들에게 세알배례를 올리고 있다.

이날 원로스님들은 참가대중의 세알배례를 받고 "나라살림이 힘들지만 늘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달라"고 당부하며 "정유년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무등 스님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삶의 지혜는 아름다운 인연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소중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 좋은 인연 만들기를 바란다"며 "새해에도 동구지역 스님들과 불자, 그리고 시민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복덕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회의원은 "새해에는 나라가 태평하고, 부처님의 높은 덕이 이 사회에 실천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행사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전달식도 이어졌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는 동구지역 청소년 장학금과 쌀 1000kg을 김성환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청소년 장학금은 지난해 봉행한 무등산 산신제를 통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조성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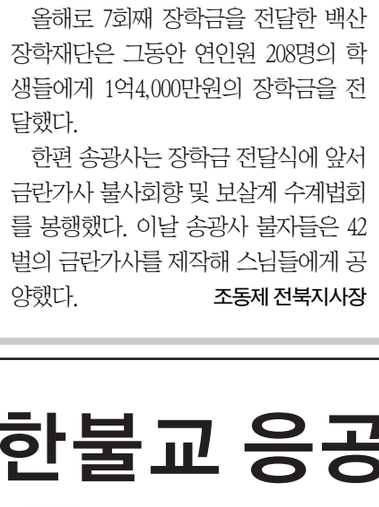
"국가 동량으로 성장해주길"

백산장학재단, 청소년 장학금 2,500만원 지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백산장학재단(대표이사 도영, 완주 송광사 회주)이 미래의 꿈나무 2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사진〉

완주 송광사는 1월 5일 송광사 사운당에서 백산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및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백산장학재단 대표이사 도영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지성 스님, 동화사 회주 자광 스님, 팔달사 회주 혜광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단암사 주지 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백산장학재단은 금산고 정병진 군과 원광대 최지은 양 등 고등학생 및 대학생 25명에게 총 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대상 학생들은 1월 13일 1박2일 일정으로 선운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며 불교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로 7회째 장학금을 전달한 백산장학재단은 그동안 연인원 208명의 학생들에게 1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송광사는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금란가사 불사회향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송광사 불자들은 42벌의 금란가사를 제작해 스님들에게 공양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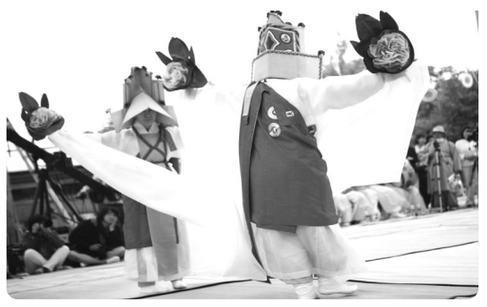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제 11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